도토리 흉년 먹잇감 부족 … 등산로 확장 서식지 훼손

멧돼지 도심·민가 습격 주의보 반달곰

수확철 농작물·가축·주민 피해 잇따라

겨울철 되면 더욱 심할 듯 … 대책 시급

올 겨울 멧돼지와 반달곰 등 야생동물의 도심과 민가 습격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상기온 탓에 예년에 비해 먹잇감이 크게 부족해진데다 최근 무등산 무돌길 등 등산로가 확장되면서 야생동물의 활동 반경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중 대표적 유해동물인 멧돼지는 부족한 먹이를 해결하러 수확철 민가까지 내려와 지역 농가들에 크고 작은 피해를 안기고 있다.

지난 9월 5일에는 구례군 산동면 중기마을 김모(41)씨 집에 멧돼지가 들어와 토종닭 우리를 습격, 수십 마리의 닭이 죽었다. 앞서 8월 중순에는 구례군 산동면 부촌마을 이모(67)씨 집에 멧돼지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 이씨를 공격, 이씨가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이처럼 멧돼지의 습격이 잦아진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들은 '도토리 흉년'을 지목했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박원균(50)씨는 "올 봄 이상저온과 지난 여름 집중 호우로 몇 년째 열매가 줄고 있던 참나무과의 낙과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도토리의 결실률도 30%에 그쳐 도토리를 주 먹이로 삼는 멧돼지의 겨울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멧돼지는 초식을 선호하는 잡식성 동물로 도토리를 주로 먹지만 도토리가 부족해지면서 멧돼지가 농작물을 찾아 산자락 민가까지 내려온다는 것이다.

멧돼지처럼 도토리를 주 먹이로 하는 반달가슴곰도 부족한 먹이때문에 민가를 습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반달곰이 먹이를 찾아 지리산 산자락 민가를 습격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 구례 등 지리산 자락 인근 마을 전체에 반달곰 방어용 전기펜스까지 설치하고 있다.

지리산에는 현재 총 17마리의 반달곰이 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폐사한 11마리의 반달곰 중 4마리가 민가 쪽으로 왔다가 덫이나 농약을 먹고 죽었던 것에 비춰, 전문가들은 올 겨울 먹이 부족으로 반달곰이 민가를 찾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등산로 개방과 도로 건설, 택지 개발 등으로 서식지인 산림이 훼손된 점도 야생동물의 '생존 본능'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광주 광산구 신안마을 주택가에 먹이를 찾아 야산서 내려온 너구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산림 훼손으로 인해 야생동물들의 서식 환경이 줄고, 결국 먹잇감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사람과 맞닥뜨릴 확률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무등산의 경우 등산로가 많이 확장되면서 활동반경에 방해를 받은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얕은 산자락 농가까지 내려올 수 있다"며 "야생동물 통로를 확충하고, 먹이를 서식지에 가져다주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광주는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1억7800만원, 전남은 82억3900만원, 전북 36억900만원이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천사 아저씨'의 비극

해남에 귀향해 마을 이웃 농사일 돕던 60대

경운기 운전 서툰 고교생 도우려다 추락사

같은 마을에 사는 고등학생을 돕기 위해 경운기를 대신 운전하던 60대가 경운기 추락사고로 숨졌다.

지난 2008년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고향인 해남으로 돌아온 양모(62)씨. 당시 건강 악화로 낙향한 양씨는 최근 건강 상태가 호전되자 마을 사람들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지냈다.

양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께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자신의 집 인근 농로에서 김모(18)군이 서툴게 경운기를 몰고가는 것을 발견했다. 양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김군은 간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와 함께 배추밭에 농약을 뿌리러 가는 길이었다.

평소 김군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던 양씨는 김군에게 다가가 "아저씨가 대신 운전해 줄 테니, 어머니를 모시고 뒤따라 와라"고 말한 뒤 경운기에 올라탔다.

그러나 양씨가 몰던 경운기는 얼마가지 못해 좁은 농로의 우회전 커브길을 돌던 중 2m 아래 수로로 추락하고 말았다. 뒤따라 오던 김군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사고 당시 경운기에 가슴 부분이 깔린 양씨는 깨어나지 못했다.

양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72)은 "양씨가 평소 마을 어른들의 농사일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곤 했다"면서 "이날도 몸이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경운기를 몰고가던 김군을 돕던 중 사고를 당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나우찬 〈8157〉 김종두

취업실패 비관 자살

40대 일용직 병원서 목 매

정규직을 꿈꾸던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취업에 잇따라 실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A병원 8층 남자 샤워실에서 최모(47)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간호사(여·2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전날 밤 9시께 북구 용봉동 자신의 집에서 극약을 마시고 신음하던 중 여동생(45)에 의해 발견돼 A병원에서 위세척을 하고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최씨는 이날 노모에게 "집에 내 휴대전화와 지갑이 있는데, 갖다 달라"고 말한 뒤 노모가 병실을 나가자 8층 샤워실에 들어가 목을 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을 찾지 못하자 인근 파출소에 가출신고까지 했지만 아들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최씨가) 취업이 되지 않아 최근 매우 힘들어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천 물고기 방류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주최 '광주천 살리기 캠페인 및 사랑 음악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교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과 학생들이 광주천에 물고기를 방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노당 후원금' 전교조 교사 8명 해임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8명이 해임 처분을 받는 등 교원 대규모 징계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부산, 대구, 대전 등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9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달 29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전교조 교사 6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8명, 정직(1~3개월) 22명 등 30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1명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해임 처분은 대구와 충북·경남에서 각 2명씩, 충남과 경북에서 1명씩 나왔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심 판결 시까지 보류키로 했고, 전남도 교육청은 2명에 대한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쓰비시車 광주전시장 영업중단

일제 피해자 불매운동·1인시위로 판매부진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불매운동과 1인 시위 등으로 판매 부진을 겪던 미쓰비시 자동차 광주전시장이 개점 1년여 만에 영업을 중단했다.

지난달 3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인근에 입점한 미쓰비시 자동차 광주전시장이 최근 판매 부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 전시장 개장 직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시민 등이 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와 불매운동 등을 벌이면서 미쓰비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11월 중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근로정신대 문제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광주전시장 관계자는 "영업을 중단한 것은 맞지만 영업 재개, 전시장 철수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해방 65년이 넘도록 임금도 돌려주지 않는 미쓰비시가 광주에서 자동차를 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08일 동안 1인 시위와 불매운동을 벌였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전남경찰청사 건립 비리

경찰간부 등 3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31일 전남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경찰청 유모(57) 경감과 기술직 직원 오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 경감 등에게 돈을 준 뒤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경찰관에게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Y건설 대표 김모(47)씨도 구속기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신병 비관 방화 50대 숨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40분께 익산시 망성면 용기리 A아파트 2층 서모(53)씨 집에서 불이 나 서씨가 숨졌다. 또 이 불로 아파트 내부 40㎡ 중 10㎡가 불에 타 3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서씨가 중풍을 앓고 있었다"는 지인들의 진술과 안방에 휴대용 가스버너가 켜져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서씨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인사 안받아?" 기자가 군의원 폭행

쌍나팔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군의원을 폭행한 화순지역 모 주간지 기자가 경찰서행.

○…지난달 31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모 주간지 기자인 안모(39)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께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화순풍류문화 큰 잔치' 행사장에서 화순군의회 A의원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다는 것.

○…안씨는 경찰에서 "A의원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대학편입 마무리 실전트레이닝!
김영만의 탄탄한 합격시나리오 11월 1일 대개강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